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지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연구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Seoul Special City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On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of
Young Adults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지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연구

지도교수 정 성 배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김 지 문

김지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희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용섭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성배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청년의 이해	6
1. 청년의 개념과 특성	6
2. 청년 취업 법령 및 정책	7
제 2 절 청년 취업 이론	9
1. 인적자본 이론	9

2. 통계적 차별 이론	9
3. 직업탐색 이론	10
제 3 절 청년 취업 영향 요인	11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1
2. 구직활동	14
3. 직업훈련	15
4. 이직횟수	15
5. 전직	16
제 4 절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16
1.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17
2.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17
3.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비교연구	18
제 5 절 선행연구	19
1. 선행연구	19
2. 지역 비교 연구	22
3. 선행연구의 평가	24
제 3 장 연구설계	26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26

1. 연구문제	26
2. 연구모형	26
제 2 절 분석자료 및 변수	28
1. 분석자료	28
2. 변수	29
제 3 절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32
1. 분석대상	32
2. 분석방법	33
제 4 장 분석결과	34
제 1 절 표본의 특성	34
1. 인구사회학적 요인	34
2. 독립변수 요인	37
3. 청년 취업 영향 요인	41
제 2 절 청년취업의 영향 요인	43
1. 교차분석	43
2. 기술통계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44
3. 상관관계 분석	52

제 3 절 분석결과 논의	56
1.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 논의	56
2.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비교결과 논의	57
제 5 장 결 론	59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59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61
1. 이론적 시사점	61
2. 실천적 시사점	62
3. 정책적 시사점	64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65
[참고문헌]	67

표 목 차

<표 2-1>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정책	8
<표 2-2> 대표적인 청년 취업에 관한 연구	21
<표 2-3> 대표적인 청년 취업 지역 비교 연구	23
<표 3-1> 변수 분류	31
<표 4-1> 전체 지역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	35
<표 4-2> 서울특별시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	36
<표 4-3> 광주광역시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	37
<표 4-4> 전체 지역 독립변수 빈도	38
<표 4-5> 서울특별시 독립변수 빈도	39
<표 4-6> 광주광역시 독립변수 빈도	40
<표 4-7> 전체 지역 경제활동 여부 빈도	41
<표 4-8> 서울특별시 경제활동 여부 빈도	41
<표 4-9>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여부 빈도	42
<표 4-10>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지역 빈도	42
<표 4-11> 취업자와 지역 간의 연관성	44
<표 4-12> 청년 취업에 미치는 혼인상태 요인 지역 비교	45
<표 4-13> 청년 취업에 미치는 가구주 요인 지역 비교	46
<표 4-14> 청년 취업에 미치는 교육정도 요인 지역 비교	47
<표 4-15> 청년 취업에 미치는 구직활동 여부 요인 지역 비교	48
<표 4-16> 청년 취업에 미치는 직업훈련 여부 요인 지역 비교	49
<표 4-17> 청년 취업에 미치는 이직횟수 요인 지역 비교	50

<표 4-18> 청년 취업에 미치는 전직유무 요인 지역 비교	50
<표 4-19> 경제활동 여부 지역별 비교	52
<표 4-20> 전체 지역 변수 간의 상관관계	53
<표 4-21> 서울특별시 변수 간의 상관관계	54
<표 4-22> 광주광역시 변수 간의 상관관계	55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27
---------------------	----

ABSTRACT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Seoul Special City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On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of Young Adults

Kim, JiMun

Advisor: Prof. Jung, Sung-Bae,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Policy,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following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of young adults on the notion of comparison study between Seoul Special City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data used for the study was originated from Statistics Korea MicroData Integrated Service(MDIS), 'Regional Employment Survey 2020' . The appropriate factors where chosen by analysing and identifying prior researches theoretical backgrounds.

The subjects chosen for the study was 8,242 young adults, aged from 19 to 34years old, who were either from Seoul Special City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study contained 4 demographic factors(gender, marriage status, household status, education level), 4 independent variables(job Searching,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experience, number of turnovers) and 1 dependent variable(employed).

The result of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of young adults follows.

First, 3 demographic factors of marriage status, household status, education level were major influential factors . All 4 independent variable factors of job Searching, vocational training, employment experience, number of turnovers were also major influential factors.

Second, the Cross tabulation Analysis showed that Seoul Special City showed larger frequency rate on unemployment person than Gwangju Metropolitan City, where as, Gwangju Metropolitan City showed larger frequency rate on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than Seoul Special City.

Third, frequency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eoul Special City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factor that showed largest difference were education level for democratic factors and employment experiment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Forth,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showed, 3 of the democratic factors(marriage status, household status, education level) and independent variables(employment experience, vocational training) have significant influence. This results highlight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of young adults have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their regions(Seoul Special C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통계청(2021)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의하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0%로 전년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의 취업문제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이 청년의 고용 침체에 일조하여 청년의 취업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의 취업 문제는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2020)에서 발표한 「OECD 고용지표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년실업률이 지난 10년간(2009년 ~ 2019년) 0.9%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OECD 평균 15~29세 청년실업률이 2009년 14.9%에서 2019년 10.5%로 10년 동안 4.4% 감소한 반면 한국 청년실업률은 0.9%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한국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 내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6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0.9% 증가하였고 그리스는 10.1% 증가, 터키는 0.6% 증가, 룩셈부르크는 0.1% 증가, 노르웨이는 0.4% 증가, 이탈리아는 4.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중 재정위기를 겪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두 나라만이 한국보다 실업률이 더 높은 나라에 속해 있다. 한국의 청년취업률은 2009년 OECD 37개국 중 5위로 상위권에 위치하였지만 2019년 15단계나 떨어져 중위권 20위로 밀려났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주요국가(G5: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와 비교하였을 때 G5에 속한 나라와 청년실업률이 큰 수치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향후 청년 실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청년의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경제연구원(2020)에서 발표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의 결과를 비교한 「OECD 고용지표 통계분석」에

서는 2009년에 청년경제활동인구가 434.0만명에서 2019년에는 433.1만 명으로 약 0.9만명(0.2%)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는 3.7만명(10.6%)이나 증가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2020) 「OECD 고용지표 통계분석」의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청년고용률 역시 OECD내 순위에서 하위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한국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2%로 OECD 37개국 중 35위에서 2019년 47.8%로 OECD 37개국 중 34위로 1단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업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통상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 보다 일자리 감소가 더 클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청년층 인구수보다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청년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모두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책과 우리사회 전체의 청년 실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청년층 취업 문제는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언급되어 왔다. 청년층이 한국에서 취약 노동계층으로서 경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이종 노동시장 구조의 수량적 유연화,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고학력화 위주의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등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청년이 취약 노동계층이 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원활한 사회 이동과 개인의 사회적응 및 개인의 경력발전 등이 점점 침체기에 들어갈수록 국가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과 인력이 상실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황정원·길혜지(2021)는 청년층 저고용 상태나 미취업이 지속할수록 인적자본 손실이 크고 청년실업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우리사회의 위험도가 더욱 심각함을 보고하였다.

E-나라지표(2021)의 「청년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 청년 취업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통계청(2020)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의하면 2020년 청년층 고용률은 약 42.2%로 전년 동월 2019년에 비해 약 1.3% 하락하였다. 취업자 수는 376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만 3000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동월대비 49천명 증가한 4,778천명, 청년실업률은 2019년보다 0.1% 상승한 9.0%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해가 지날수록 취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가 청년 취업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2000년 도입한

「청년층종합실업대책」을 시작으로 법률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2004년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하고 2009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하기까지 한국정부는 청년층 취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 취업애로 계층(여성, 청년,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등을 발표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위한 예산 약 2.3배를 4년에(2014년~2018년) 걸쳐 증액 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한국정부는 청년의 취업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청년고용 분야의 지원하였지만 투자대비 청년 고용률 증가가 미미하여 예산 낭비와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기회와 관촬은 일자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존재한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지역별 차이는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비교하였을 때 지역 대학을 나오면 임금이 수도권 대학보다 낮았고 임금 격차가 존재하여 관촬은 일자리 기회 및 취업기회도 다르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대다수가 수도권 위주의 청년 취업 정책이며 긍정적이지 못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역시 이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써 청년 취업에 관하여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청년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역 사회의 청년 취업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지역별로 적합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위해서 각 지역의 다른 차이를 인정하며 전국적 평균 수치를 통한 정책이 아닌 한 지역의 원인이 다른 지역의 원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별 선행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직 청년 취업에 관한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경제적 환경, 개인적 특성, 취업에 관련된 요인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취업에 관한 지역별 비교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지역 간 특성에 의한 취업 영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 취업 영향 요인에 관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비교 연구로 두 지역을 비교 후 각 지역 사회의 청년 취업 향상을 위해 청년 취업 관련 요인에 따라 청년의 취업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변수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시작으로 연구모형 설정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향후 연구 방향 제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여 제 1 장은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 2 장은 이론적 배경에서는 청년의 이해와 청년 취업이론 그리고 청년 취업 영향요인 및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과 기존의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제 3 장은 연구설계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 대상과 통계적 분석을 제시한다. 제 4 장은 분석결과로 연구모형에 따라 실시된 각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연구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제 5 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종합적인 결과와 내용을 요약하고 선행연구 비교를 통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 제시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공간적 범위와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19세 ~ 34세)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0년 제공한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A형 시군 중분류)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20년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간적 범위는 2020년 하반기 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해 이론적 내용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독립변수를 검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전문서적, 통계자료, 법률정보 및 규정 등을 참조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정립,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변수를 검토 후 선정하였다.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연구를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 4가지와 독립변수 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전직유무, 이직횟수로 4가지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제활동 구분으로 총 3가지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독립변수가 3가지 종속변수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통계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8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고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자와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취업자 요인에 교차분석을 통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두 지역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을 통하여 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경제활동 구분의 F값 확인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찾았으며 t값을 통한 등분산을 가정할지, 하지 않을지를 정한 후 결과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하여 적합성 검증을 위한 결측률 검수 및 평균, 표준편차를 통하여 연구모형 분석에 적합한 연구 자료 인지 확인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청년의 이해

1. 청년의 개념과 특성

청년이란? 성년이라고도 하며 청년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법률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청년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청년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이라고 국어대사전(2021)에서 정의하였다.

청년 시기는 초기 성인기(young adulthood)에 해당하는 시기로 육체적·정신적 인간 발달단계를 거치며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상대적으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고 독립적인 삶과 인생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신명의 외, 2013; 김기현, 2017).

연령규범(age norms)이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나이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령에 따라 적합한 역할과 행동, 인식 등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연령대의 사회적 생활양식 및 태도 그리고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이며 반응이다(Settersten, 2003). 연령규범은 생애주기별(Life Cycle)로 아동, 청년, 중년, 노인과 같이 나타나며 그중 청년기에는 새로운 가족 형성과 경제활동 시작 등 취업과 결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종인, 2007; 이윤경, 2021). 최근에는 기본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단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져 청년의 시기를 각각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강덕구, 2018).

청년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은퇴 시기도 늦어지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술과 의약품, 건강식품 등의 도움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나이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명확한 청년층의 연령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개념은 각종 청년지원제도가 생기면서

다양한 연령대 청년의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의 연령을 지정하는 법령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이지우, 2019).

따라서 청년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신체적·정신적 인간 발달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삶과 인생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나이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층의 연령의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청년층의 정확한 연령대를 단정 지을 수가 없다.

2. 청년 취업 법령 및 정책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 정책 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연령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본래 청년을 15세~29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청년할당제로 15세~34세로 청년연령이 개정되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39세까지 청년을 규정하여 창업촉진사업 지원 및 예비창업자 시행 등을 시행령 25조의 2항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현실적인 청년의 연령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5조 1항에 의거하여 15세에서 34세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연령으로 2014년부터 34세까지 규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청년을 만 15세~34세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로 청년 연령 기준의 개념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한 만 19세~34세로 이하로 적용하였다.

고용노동부(2021) 「청년취업 정책」을 살펴보면 온라인 청년센터, 오프라인 청년센터,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청년 내일채움 공제 등이 있다. 이는 정부에서 현재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취업 증가와 정책 개선을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위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정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정책

정책	주요내용
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한 중앙·지자체 청년정책·공간 정보 및 정책안내 등 고용 서비스 제공하며 주 사업으로는 정책정보(중앙·지자체 정책정보에 금융,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정책정보 검색 기능 제공), 공간정보(공간별 운영, 정보 제공, 전국 청년공간 서비스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전화, 게시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개인 및 정책 안내 상담 서비스 제공)이 있다. 현재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239개의 청년공간 정보와 395개의 중앙 3,297개 지자체 청년정책을 제공 중이다.
오프라인 청년센터	청년의 정책 역량과 체감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별 청년친화 공간 활용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청년정책 통합안내,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들(15세~34세)의 장기근속 유도 및 중소기업 신규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업(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기업)당 최대 3명까지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2021년 한시 사업이며 총 9만 명을 지원하고 예산 소진이나 목표 인원 조기 달성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청년들에게 다양한 산업현장 및 직업세계에 대한 체험 제공을 목표로 정보제공(우수한 중소기업)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시장 조기입직 유도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청년인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 1만명이며 참여기간 동안 운영기관은 1일 1인당 평균 13.5만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며, 연수생에게 참가비 무료로 1일(5시간)~5일(40시간)에 연수프로그램을 참가한다.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산업계·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청년층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만 18~34세로 약 70% 이상이 채용예정자 훈련 40% 이상이 재직자 훈련으로 청년층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 훈련기간은 30~40시간으로 약 2~3주 내외가 재직자, 5개월 이내가 채용 예정자로 다양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훈련방식을 도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중소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5인 미만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며 중소기업 중 가능한 기업으로는 3년 동안 평균 매출 금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와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만 신청 가능한 정책이다.

제 2 절 청년 취업 이론

1. 인적자본 이론

인적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인간의 노동력이나 생산력은 투자에 의해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고 생산성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훈련, 교육 등)를 통해 향상하고 그로 인하여 임금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Becker, 1975; Mincer, 1970). 인적자본 이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가정에 기반을 두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노동시장은 시장의 정보들은 참여자들 모두에게 통합되고 공평하게 개방되어 있으며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성과결정 요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Burt, 1999; Lie, 1992).

인간은 훈련, 정보, 교육, 건강 등 타인에 비해 더 나은 인적자본을 갖추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인의 인적자본에 맞는 취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이민주, 2017).

인적자본과 관련된 상당수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인적자본 이론에서는 개인의 가치는 인적자본의 영향으로 훈련, 교육 등의 투자가 많을수록 더욱 높아지고 이는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정된 지위와 경쟁에서의 우위 그리고 이에 따른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은 본인의 기술, 지식, 교육을 위해 더 좋은 대학과 자본, 그리고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더 향상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지우, 2019; 황은미, 2018).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이론을 바탕으로 청년 취업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교육 정도, 가구주 그리고 직업훈련 유무를 도출하였다.

2. 통계적 차별 이론

통계적 차별 이론(Statistic Discrimination Theory)은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인적자본 이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주목한 이론이다(Arrow, 1972; Phelps, 1972). 이는 개인이 소속된 집단이나 특성에 따라 노

동시장의 구조가 달라지며 취업에서의 차별과 능력에 맞지 않는 대우를 노동자의 특정 요인들로 인해 받는 것을 의미한다(조민수, 2008).

이는 신앙, 국적, 성별, 사회적 신분, 임금, 등의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기회균등 및 합리적 사유 없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내용과 성립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한도를 넘어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는 것이다(최일수, 2012).

동일한 교육을 받은 개인이어도 개인이 속한 성별, 지위나 계급 등과 같은 귀속적 요인들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차별로 교육과 상관없이 차별을 받는 집단이나 개인은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류 집단이나 상류 계층에 비해 큰 영향력을 낼 수 없다(이지우, 2019).

통계적 차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성별에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실질적 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고용 및 보상의 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취업에 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경우 대학의 유형이나 위치(서울, 지방)에 따라 취업함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김형근 외, 2016; 이지우, 2019).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차별 이론을 바탕으로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성별, 혼인상태, 지역 변수를 도출하였다.

3. 직업탐색 이론

직업탐색 이론(Job Search Theory)은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기술이 임금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며 구직자들은 이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그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계속 탐색하고 구직자가 더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기술에 맞게 더 많은 일자리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론이다.

이는 데일 모텐슨(1970)의 연구 「일자리, 실업의 기간과 필립스 곡선」에서 발전된 것으로 확률적으로 노동시장의 마찰이 도래하는 매칭기회(Matching Opportunities)를 통해 설명된 것이다.

청년 중에서도 고등학교 중퇴자와 대학졸업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이 고등학교 중퇴자의 3분의 1가량 되는 이유는 대학졸업자들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인해 결국에는 취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고등학교 중퇴자는 취업

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민주, 2017).

본 연구에서는 직업탐색 이론을 바탕으로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구직 활동 여부와 이직횟수 변수를 도출하였다.

제 3 절 청년 취업 영향요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성별, 혼인 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구직활동 여부, 전직유무, 이직횟수, 직업훈련 유무로 구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두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겠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독립변수(구직활동 여부, 전직유무, 이직횟수, 직업훈련 유무)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결과를 영향 요인과 변수별로 정리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이론적 배경인 통계적 차별 이론과 인적자본 이론 그리고 사회연결망 이론에서 도출된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로 설정하였다.

(1) 성별

성별이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한겨레(2020.12.03) 「20대 여성의 고통은 사회적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에서는 여성 임금 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받는 시간당 임금이 더 적으며 연령 중 15~29살 남녀의 임금 격차가 가장 적었지만 이 연령대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근속연수, 직업교육 훈련 기간, 교육연수 등의 횟수가 많아 남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전하였다. 사회는 여전히 성별로 인한 결혼, 육아,

취업, 승진 등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결혼과 자녀출산 등에서 겪는 양육 과정에서 여성의 퇴직이 발생하여 남녀 취업률이 차이가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오세규(2003)는 청년층 취업의 영향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실업의 문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미혼 남성보다 기혼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족 부양의 의무로 인한 결과로 예상된다고 전하였다. 반면 기혼 여성은 경력단절 현상과 사회적 기피 현상으로 인해 실업 영향이 높고 재취업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일 확률이 더 높으며 2차 소득원인 경우가 많아 실업할 비율이 재취업의 가능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 가능성이 큰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며 여성의 실업 문제는 청년층만이 아닌 전 연령층의 문제임을 지적하였다(이지우, 2019; 채창균·김태기, 2009).

김경모(2002)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청년층의 실업 기간에 성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성별이 청년 취업에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성별을 구성하고자 한다.

(2) 혼인상태

혼인상태가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기사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경남신문(2021.08.25) 「경쟁에 지쳐 무기력한 청년들」에서는 청년은 취업해도 월세, 학자금 상환 등으로 돈을 모을 여건이나 여유를 즐길 시간도 없으며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결혼도 포기하며 역대 최저치의 혼인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류기철(2001)의 연구에 따르면 기혼 남성이 부양할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영향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기혼 남성은 대부분 가구주이며 경제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여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반면 청년 미취업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둔 남기곤(2007)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혼인상태 요인에 관련해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미취업 영향 요인 및 실업률의 유의미한 영향이 낮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미혼 여성보다 기혼 여성은 미취업 영향이 남성보다 40%정도 더 높은 영향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지연·호정화(2001)의 연구에서 여성 기혼자는 정규직으로 이동할 영향이 적으며

오히려 비임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혼인상태가 청년 취업에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혼인상태를 구성하고자 한다.

(3) 가구주

가구주가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기사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데일리팝(2020.05.15) 「성별·주거형태에 따라 1인가구 비중 차이 커져... 여성·미취업자 1인가구 비중 ↑」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가구주의 취업 형태별 1인가구의 비중에서 취업 가구 1인가구 비중은 21.5%, 미취업 가구주 비중은 35.9%로 약 1.7배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경험 및 고용형태에 따른 빈곤의 이해 고찰에 초점을 둔 김교성·반정호(2004)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대상이 가구주일 경우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타났다.

류기철(2001)의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기혼자인 남성은 대부분이 가구주이며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관찮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노력이 더 클 수 있다고 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가구주가 청년 취업에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가구주를 구성하고자 한다.

(4) 교육정도

교육정도가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기사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동아일보(2021.01.30) 「“文정부, 더는 ‘청년’ 팔아 표 못 얻는다...고졸 일자리 절망”」에서는 청년 고졸이 불평등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에 소득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였다.

국내 연구로 여성들의 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직업경험과 첫 직장 이후

퇴사 사례를 경험에 초점을 둔 오은진 외(2009)의 「교육 수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취업선택 결정요인」 연구에 의하면 첫 직장에서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고졸 10.8%, 대졸 30%, 전문대졸 20.6%로 예전의 고용상태를 회복하는 비율이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였다.

고졸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에 영향 요인에 초점을 둔 임유진(2016)의 「고졸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고졸 청년 중 여성의 경우 실업의 영향이 더 강하였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통한 노동수요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이 비교적 많이 몰리는 특별시의 경우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고졸 청년에게 우선시 될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교육정도가 청년 취업에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교육정도를 구성하고자 한다.

2. 구직활동

구직활동 여부가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기사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중앙일보(2019.08.27) 「청년실업 최악인데...대기업 34% “채용 없다”」에서는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줄어들고 있으며 그로인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끝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도 높아지며 청년층은 더욱 경쟁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경·이기업(2008)의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연구에 의하면 졸업 전 구직을 먼저 시작한 사람일수록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과 비교 하였을 때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이 첫 직장 취업 여부에 있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졸업 후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첫 직장 취업에 용이함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구직활동 여부가 청년 취업에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독립변수에서 구직활동 여부를 구성하고자 한다.

3. 직업훈련

직업훈련 유무가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기사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중앙일보(2012.11.21)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중소기업 손잡고 맞춤 교육…올 8486명 중 85% 취업」에서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실시되는 직업훈련은 근로자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은 더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청년의 직업훈련 유무에 따라 구직시 구인시장에서 더욱 선호하는 인재라 할 수 있다.

이민주(2017)의 「대졸청년층의 이직실태와 이직의도 분석」 연구에 의하면 직업훈련 경험이 있을수록 청년 취업자가 현재 일자리에서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최문경·이기업(2008)의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연구에 따르면 직업훈련과 같이 어학연수,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들은 대졸자가 취업을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직업훈련 유무가 청년 취업에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독립변수에서 직업훈련 유무를 구성하고자 한다.

4. 이직횟수

이직횟수가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기사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일보(2019.05.27) 「10년차 직장인, 평균 4차례 이직한다…연봉이 원인」에서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이직 경험 있다고 답하였다. 이직에 이유는 연봉에 대한 불만, 상사에 대한 불만,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다.

한승훈(2014)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일자리가 안정적이진 않더라도 그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때 근로조건이 현 직장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민주(2017)의 「대졸청년층의 이직실태와 이직의도 분석」 연구에 의하면 오히려

이직횟수가 많을수록 현재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졸 청년층이 이직을 반복 할수록 일자리 고용형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이직횟수가 청년 취업에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독립변수에서 이직횟수를 구성하고자 한다.

5. 전직

전직유무가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기사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동아일보(2020. 11. 12) 「잃어버린 세대’ 29만명」에서는 통계청 자료에서 만 25세 ~ 39세 전문대와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청년 가운데 29만명의 청년실업자가 단 한 번도 취업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주(2017)의 「대졸청년층의 이직실태와 이직의도 분석」 연구에 의하면 직업경험이 없을수록 현재 청년 취업자가 받는 임금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졸청년층은 직업경험이 없을수록 취직과 임금수준에서 직업 경험이 있을 때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전직유무가 청년 취업에 관련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독립변수에서 전직유무를 구성하고자 한다.

제 4 절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지역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느 범위의 토지가 일정하게 구획된 것이라고 국어대사전(2021)에서 정의하였으며 지역은 기능적으로 가치적 관념이나 활동 범위가 강조된 의미로도 통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총 17개의 행정구역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1. 서울특별시 청년정책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면적 605.20km² 총인구수 9,532,428이며 대한민국의 총인구수인 51,662,290의 약 5분의 1 정도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 중이다(서울특별시청, 2021).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현재 유일한 특별시이며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답게 문화와 경제, 사회, 정치 등의 중심지이다.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에는 총 25개의 자치구와 424개의 행정동이 있다.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에 수도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국가의 통치기관이 집중되어있으며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정부서울청사, 한국은행, 국제 백신 연구소 등의 주요 기관들이 있다.

서울청년포털(2021) 서울특별시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의 사회진입과 자립 발판 마련 및 사회안전망 강화·활력 증진 등을 메인으로 청년일자리 1,000개 추진, 청년 인생 설계 학교 운영,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서울 청년수당지급·활력 프로그램 운영, 청년 마음·신체건강 지원,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청년 신용회복 지원, 청년 신용회복 지원, 청년 활력 공간조성·운영이 있다. 청년 당사자 시정참여 보장과 청년의 사회병화 주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청년자율예산편성·집행, 서울미래인재 양성·지원, 서울청년시민회의·청년 거버넌스 운영, 청년교류 지원사업 추진, 청년 프로젝트지원 사업 추진, 청년기업-못난이 농산물 상생 프로젝트가 있다. 또한, 온라인·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내실화로 협동 하는 기관으로는 서울청년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포털,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있다.

2.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광주광역시는 우리나라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 광역시로 총면적은 501.13km² 이며 총인구수 1,444,787이다.(광주광역시,2021)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였을 때 총인구수가 약 6배 정도 차이가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5개의 자치구(동구,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와 90개 동이 있다. 광주광역시는 호남지방 최대의 도시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이어 국내 제 5위를 차지하는 대도시이며 광역

중심도시의 기능으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청년정책(2021)에 의하면 현재 광주광역시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광주청년 일 경험 드림,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 지원,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취업 지원,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청년취업 광주나래(정장대여 등) 서비스, 청년 job 희망 팩토리,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기관 청년채용 강화, 글로벌 청년취업지원,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용, 크라우드펀딩 창업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이 있다.

3.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비교연구

청년 취업에 관한 지역적 요인을 살펴보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를 기점으로 비수도권인 지역들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2021)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청년 만 19세에서 34세의 인구수는 2,254,657명으로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의 청년 인구수 318,991명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분포되어있는 취업에 유리한 요인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대기업인 LG, 삼성, 현대, 구글 등의 본사가 서울특별시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또는 괜찮은 직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를 뜻한다.

광주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인구수 차이가 나는 만큼 서울특별시보다 사회기반 시설이 약하고 낙후되어 있다. 그 예로는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노선 수가 10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광주광역시는 1개 밖에 없고 서울특별시는 공항철도와 같은 이동의 편의를 위한 노선이 존재하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비교적 한정적인 환경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대법원, 대기업 등 대부분 주요 시설들이 광주광역시보다는 서울특별시에 분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수도권에 거주 중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 경제력을 통한 취업에 관한 기회에서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광주광역시의 거주하는 청년층보다 지리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특별시와 비교할 지역을 광주광역시로 선정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된다.

채창균·김태기(2009)는 청년이 수도권에 거주할 때 비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과 상대적으로 취업률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청년이 취업하는데 차이가 나며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비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보다 취업률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일반(2019.12.11) 「11월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수 30만명↑」에서 2019년 상반기 취업자 중 서울특별시가 57.9%로 고학력 취업자가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광주광역시 54.5%로 더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수 차이가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통계적으로 더 고학력 취업자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자를 비교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 이에 청년 취업 향상을 위해 청년 취업 관련 요인에 따라 청년의 취업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 5 절 선행연구

1. 선행연구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영향 요인을 연구한 대표적인 5편을 선행연구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승희(2019)의 「운수업 대졸 신입직원의 이직요인 분석연구」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졸 청년 취업 영향 요인으로는 개인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교유형), 조직특성(노동조합 유무, 주당 정규근로일, 주당 정규근로시간, 주당 초과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직무만족도(임금, 일하는 시간, 인간관계, 고용안정성, 개인발전가능성, 근무환경, 전공일치, 전공지식 도움)에서 운수업종사자에 의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개인특성 중 혼인상태, 직무만족도 중 인간관계, 전공일치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훈(2014)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배경(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교육정도, 가구주의 혼인 상태, 거주지역, 가구구분), 청년층의 인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청년층의 취업관련 특성(학교교육 외 교육훈련경험, 정규교육 중 취업경험, 최종학교 졸업종퇴 후 취업횟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과정(니트족 여부, 구직니트족 여부, 구직희망니트족 여부, 첫 일자리의 안정성 여부, 현재 일자리의 안정성 여부)가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청년층의 현재 또는 최근 일자리의 안정성 여부에 청년층의 사회적 배경, 인적 특성, 취업관련 특성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성별, 교육정도 등의 인적특성이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진주·조민호(2016)의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변수로 크게 4가지 변수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나이, 성별, 최종학력), 가구 변수(부모 최종학력, 가구 월평균 소득), 대학생활 변수(수능성적, 전공계열, 복수전공, 휴학, 아르바이트 횟수, 국가고시, 학교 소재지), 졸업전 구직변수(취업 노력, 해외연수, 취업 사교육, 진로상담, 직업훈련, 희망 연봉, 직장체험, 정보 취득 경로, 자격증 개수)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니트형은 구직행위의 적극성이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 여부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졸업 전과후의 구직 노력이 노동시장 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정호 외(2005)의 청년고용형태 전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청년 취업자에 관련된 영향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 수, 가구주여부, 결혼 상태), 직무 관련 변수(구직경험의 공식화, 직무만족정도, 직무적절성 정도,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 여부, 이직의사여부), 직업관련변수(근무시간, 직장규모, 직장형태, 평균임금)를 설정했으며 청년 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청년의 안정된 고용 형태를 유지할 유의미한 변수는 성(여성), 가구주여부(가구주), 가구원수, 평생직장 여부, 근무시간, 직장규모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계층의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심각하며 여성 실업자의 비중이 25세에서 29세 사이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민주(2017)의 「대졸청년층의 이직실태와 이직의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학 소재지와 취업목표설정시기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여 두 요인이 개인-직무만족과 일자리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직 의도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졸 청년층의 이직이 근로형태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표 2-2> 대표적인 청년 취업에 관한 연구

연번	연구자와 연구구분	지역 비교	영향 요인	비고
1	이승희(2019) 운송업 대졸 신입직원의 이직요인 연구	전문대학, 4년제 대졸자	성별, 연령, 혼인상태, 대학유형, 노동조합유무, 주당 정규근로일, 주당정규근로시간, 주당 초과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임금, 일하는 시간, 인간관계, 고용안정성, 개인발전 가능성, 근무환경, 전공일치, 전공지식도움	
2	한승훈(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년	사회적 배경(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교육정도, 가구주의 혼인상태, 거주 지역, 가구구분), 청년층의 인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청년층의 취업관련 특성(학교교육 외 교육훈련경험, 정규교육 중 취업경험, 최종학교 졸업종퇴 후 취업횟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과정(니트족 여부, 구직니트족 여부, 구직희망니트족 여부, 첫 일자리의 안정성 여부, 현재 일자의 안정성 여부)	
3	김진주·조민호(2016)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 분석: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	청년실업	인구통계학적 변수(나이, 성별, 최종학력) 가구변수(부모 최종학력, 가구 월평균 소득) 대학생활 변수(수능성적, 전공계열, 복수전공, 휴학, 아르바이트 횟수, 국가고시, 학교 소재지), 졸업전 구직 변수(취업 노력, 해외연수, 취업 사교육, 진로상담, 직업훈련, 희망 연봉, 직장체험, 정보 취득 경로, 자격증 개수)	
4	반정호 외(2005) 청년 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년	인구사회학적변수(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주여부, 결혼상태), 직무관련변수(구직경로의 공식화, 직무만족정도, 직무적절성 정도,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 여부, 이직의사 여부), 직업관련변수(근무시간, 직장규모, 직장형태, 평균임금)	
5	이민주(2017) 대졸청년층의 이직실태와 이직의도 분석: GOMS를 활용한 대학소재지와 취업목표설정시기 요인 효과를 중심으로	대졸 청년	성별, 전공계열, 대학소재지, 취업목표 설정 시기	

2. 지역 비교 연구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를 알아보기 위해 청년 취업에 관한 지역 비교 연구를 한 대표적인 5편을 선행연구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지우(2019)의 「청년의 관찮은 일자리 취업의 영향 요인에 관한 지역 간 비교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전공, 혼인상태), 가정환경요인(부모동거 여부, 부모 학력, 가구소득, 가족경제지원), 취업관련 요인(대학유형, 어학연수 경험 유무, 자격증 취득 여부, 직업훈련 유무, 취업목표 유무, 인턴경험 유무)에서 광역시·도 분석결과 가정환경요인에서 광역시는 가족경제지원이 있는 경우 광역시도는 가구소득이 700만원이상, 가족경제지원이 있는 경우, 취업관련 요인에서 광역시는 인턴경험 있는 경우 광역시도는 자격증이 있는 여부와 인턴경험이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김형근 외(2016)의 「대전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특성 분석」에서는 전공 더미, 혼인 더미, 가구주 더미, 직업훈련이수 더미, 구직경험 더미, 구직경로 더미, 구직탐색 더미, 미취업기간(In)에서 대전지역 여성의 취업결정을 향상시키는 영향이 큰 변수는 직업훈련더미, 결혼더미에서 유배우보다 혼자인 미혼과 기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김재홍(2018)의 「대졸자의 취업이동과 지역인재유출」 연구에서 변수는 상수, 사립대, 전문대, 인문사회전공, 교육전공, 의약전공, 예술체육전공, 성별, 나이, 졸업성적, 토익, 직장경험, 해외연수, 직업교육, 자격증수, 인턴, 울산지역대학, 수도권대학으로 자격증 수와 해외연수만이 취업지역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문경·이기업(2008)의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의 연구 요인인 학교등급, 학점, 전공, 자격증 수, 어학연수, 복수전공,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지역, 성, 가구소득, 구직 활동 유무, 졸업 전 구직기간, 구직방법, 구직방법 다양성에서 인적 자본 변수(대학 등급, 자격증, 학점, 전공, 어학연수, 직업훈련, 가구소득)와 기회구조(지역, 성) 변수들 모두 첫 직장으로서의 탈출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배·이지우(2018)의 「대졸자의 관참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지역 비교」 연구에서 취업영향 요인은 성별, 연령, 대학유형, 취업 프로그램 참여, 어학연수, 자격증, 가족 경제 지원,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관참은 일자리였으며 어학연수와 가족경제지원이 대학 졸업자의 관참은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2-3> 대표적인 청년 취업 지역 비교 연구

연번	연구자와 연구구분	지역 비교	영향 요인	비고
1	이지우(2019) 청년의 관참은 일자리 취업의 영향 요인에 관한 지역 간 비교 연구	우리나라 17개 시·도 (강원, 경기, 광주,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전남, 전북, 충북, 충남)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전공, 혼인상태), 가정환경 요인(부모동거여부, 부모 학력, 가구소득, 가족경제지원), 취업관련 요인(대학유형, 어학연수 경험 유무, 자격증 취득 여부, 직업훈련 유무, 취업목표 유무, 인터넷경험 유무)	
2	김형근 외(2016) 대전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특성 분석	대전	전공 더미, 혼인 더미, 가구주 더미, 직업훈련이수 더미, 구직경험 더미, 구직경로 더미, 구직탐색 더미,	
3	김재홍(2018) 대졸자의 취업 이동과 지역인재유출: 울산 지역 사례	서울, 울산	상수, 사립대, 전문대, 인문사회전공, 교육전공, 의약전공, 예술체육전공, 성별, 나이, 졸업성적, 토익, 직장경험, 해외연수, 직업교육, 자격증수, 인턴, 울산지역대학, 수도권대학	
4	최문경·이기엽(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서울권, 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학교등급, 학점, 전공, 자격증 수, 어학연수, 복수전공, 직업훈련, 아르바이트, 지역, 성, 가구소득, 구직 활동 유무, 졸업 전 구직기간, 구직방법, 구직방법 다양성	
5	정성배·이지우(2018) 대졸자의 관참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지역 비교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성별, 연령, 대학유형, 취업 프로그램 참여, 어학연수, 자격증, 가족 경제 지원,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관참은 일자리	

3. 선행연구의 평가

청년취업에 관하여 지역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면 시사저널(2020.07.22) 「직업없는 20대 사상 최대...166만 명 넘었다」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일거리 감소로 인한 비수도권 청년층 인구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하였다. 2019년 4분기 청년고용률에 따르면 전국 평균 44.1%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인 인천 경기는 서울 47.7%, 인천 49.8%, 경기46.7%로 수도권 지역은 전국 평균 이상의 고용률을 보였다. 반대로 비수도권은 대부분 30%대에 머물렀다고 나타났다. 이 격차는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20대 청년들은 지방에서 대학 입학의 계기로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더 좋은 취업의 기회를 찾고 있다고 전하였다.

채창균·김태기(2009)는 지역에 따른 취업결과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비수도권에 거주할 때 보다 취업률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를 보였다. 오세규(2003)도 일반적으로 지방에 위치해 있는 대학의 청년들이 수도권 지역 대학이나 광역시 소재지에 위치해 있는 대학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청년들이 임금이 낮았다고 전하였다. 또한, 정태영·이기업(2005)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청년들이 더 좋은 조건의 관촬은 직업과 일자리를 획득할 확률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된다.

우리나라 전체 지역 청년 취업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지우(2019)는 청년의 관촬은 일자리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광역시(서울, 대전, 광주, 인천, 울산, 부산)·광역도(경북, 경남, 강원, 경기, 전남, 제주, 세종, 충북, 충남, 전남)를 비교분석하고, 17개 시·도(광주, 경기, 강원, 대구, 경북, 경남,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울산, 세종, 전북, 전남, 제주, 충북, 충남)를 지역별로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전공은 교육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이 높은 영향요인이었으며 예체능계열이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요인에서는 가족경제지원과 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이 높은 영향요인이었다. 취업관련 요인 중 인턴경험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취업에 대학의 역할과 가족의 역할, 인턴경험과 자격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광역시에서는 인턴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은 영향 요인이었으며 광역시도에서는 여성이 예체능계열과 교육계열이 가장 높은 영향요인 이었

다. 이는 가족지원으로 취업성공과 인턴지원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전공계열별로 취업전략이 필요하며 성별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인 청년의 일반적 특성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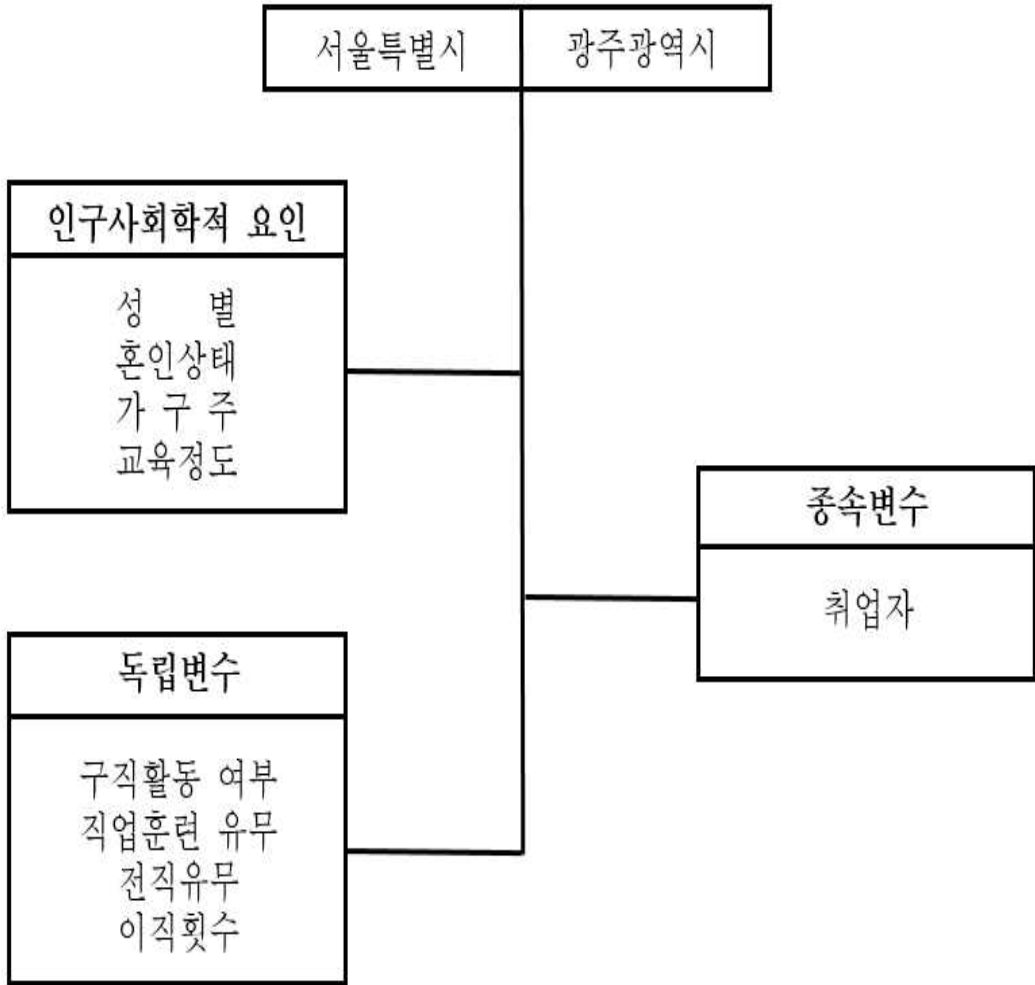
둘째, 연구대상인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연구대상인 청년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별 차이는 무엇인가?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고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하여 각각 변수가 두 지역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하위요인으로는 총 4가지로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총 4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유무, 전직유무, 이직횟수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취업자로 하위요인으로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 간의 관계를 종합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적 모형<그림 3-1>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분석자료 및 변수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2020)에서 발표한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A형 시군 중분류)」이다. 위 자료는 전국에 있는 만 15세 이상부터 사회·경제활동, 성별, 혼인상태, 교육정도 등 정보를 조사 및 제공하고 있는 자료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한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는 2008년 연간자료(A형 시군 중분류)를 시작으로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시군),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구직활동 여부, 전직유무 등 대상자들의 취업에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MDIS)은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술논문, 기업 경영전략 수집 등 심층 연구·분석을 위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란 개발단위(가구, 개인, 사업체 등) 자료로 통계조사에 원자료에서 조사 및 입력 오류 등을 수정 후 완성되는 자료이다.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 외에도 정부 각 부처, 연구기관, 지자체 타 통계작성 기관의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서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통계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며 논문을 작성하거나 사회현상, 심층적인 경제 분석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제한 없이 제공되고 있다.

이 자료는 2020년 하반기 현재 대한민국 외 해외 및 선박까지 포함한 377,3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구대상은 분석 자료에서 제시된 전국에 있는 377,353명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청년층인 만 19세 이상부터 34세까지 8,24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만 19~34세 청년층 6,580명과 광주광역시에 거주 중인 만 19~34세 청년층 1,662명을 비교 연구하여 두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변수

본 연구의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구축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청년 취업관련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1) 성별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남성 = 1, 여성 = 0으로 분류하였다.

(2) 혼인상태

혼인상태는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미혼 = 1, 기혼 = 2, 사별 = 3, 이혼 4로 분류하였다.

(3) 가구주

가구주는 가구주, 그 외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가구주 = 1, 그 외 = 0으로 분류하였다.

(4) 교육정도

교육정도는 전문대, 그 외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전문대 = 1, 그 외 = 0으로 분류하였다.

나. 독립변수

(1) 구직활동 여부

구직활동 여부는 있었음, 없었음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있었음 = 1, 없었음 = 0으로 분류하였다.

(2) 전직유무

전직유무는 있었음, 없었음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있었음 = 1, 없었음 = 0으로 분류하였다.

(3) 이직횟수

이직횟수는 없음, 1번, 2번 이상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없음 = 1, 1번 = 2, 2번 이상 = 3으로 분류하였다.

(4) 직업훈련 유무

직업훈련 유무는 있었음, 없었음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방법은 있었음 = 1, 없었음 = 0으로 분류하였다.

다. 지역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라.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취업자로 선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취업자 = 1, 실업자 = 2, 비경제활동인구 = 3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3-1>.

<표 3-1> 변수 분류

	요인	내 용	비고
인구사회학적요인	혼인상태	미혼 = 1, 기혼 = 2, 사별 = 3, 이혼 = 4	
	가구주	가구주 = 1, 그 외 = 0	
	교육정도	전문대이상 = 1, 그 외 = 0	
독립변수	구직활동 여부	있었음 = 1, 없었음 = 0	
	직업훈련 유무	있었음 = 1, 없었음 = 0	
	이직횟수	없음 = 1, 1번 = 2, 2번 이상 = 3	
	전직유무	있었음 = 1, 없었음 = 0	
종속변수	취업자	취업자 = 1, 실업자 = 2, 비경제활동인구 = 3	
		총 계	

제 3 절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1. 분석대상

(가) 분석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2020)에서 제공한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하반기(A형 시군 중분류)」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통계적 분석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검증한 실증연구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의 목적은 전국에 지역별 인구 고용 현황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에 대한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있다. 연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분석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A형 시군 중분류)」에서 제공한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총 37만 7,353명의 참가자 중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층인 만 19세 ~ 34세로 총 8,242명(서울특별시 6,580 명, 광주광역시 1,662명)을 본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첫째,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독립변수를 검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전문서적, 통계자료, 법률정보 및 규정 등을 참조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변수를 검토 후 선정하였다.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비교 연구를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로 선정하였고 독립변수는 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유무, 전직유무, 이직횟수로 분류하였다. 종속변수는 취업자로 총 3가지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통계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8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고 빈도분석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와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 교차분석을 통한 취업자와 지역(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기술통계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wo Sample t-test)을 통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독립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인 경제활동 구분의 F값 확인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찾았으며 t값을 통한 등분산을 가정할지 하지 않을지 정한 후 결과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수들간의 Pearson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하여 적합성 검증을 위한 결측률 검수 및 평균, 표준편차를 통하여 연구모형 분석에 적합한 연구자료 인지를 확인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표본의 특성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 분석 대상 전체 지역

본 연구 대상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만 19~34세 청년 8,242명의 전체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남성 3,930명(47.68%), 여성 4,312명(52.32%)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7,029명(85.28%), 기혼 1,178명(14.29%), 사별 4명(0.05%), 이혼 31명(0.38%)로 나타났으며 그중 미혼이 85.28%로 혼인상태에서 데이터 가운데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를 알아보는 통계조사 결과 가구주 3,483명(30.13%), 비가구주는 5,759명(69.87%)로 비가구주 위주로 데이터가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 4,548명(55.18%), 그 외 3,694명(44.82%)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주와 혼인상태의 데이터가 각각 비가구주와 미혼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성별과 교육정도는 데이터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지역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 분석결과는 <표4-1>에 제시하였다.

<표 4-1> 전체 지역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

구분		전체 지역(n=8,242)	
		빈도	퍼센트
성 별	남 성	3,930	47.68
	여 성	4,312	52.32
혼인상태	미 혼	7,029	85.28
	기 혼	1,178	14.29
	사 별	4	0.05
	이 혼	31	0.38
가구주	가구주	2,483	30.13
	비가구주	5,759	69.87
교육정도	대졸이상	4,548	55.18
	그 외	3,694	44.82
합 계		8,242	100

나. 서울특별시

본 연구 대상인 서울특별시의 만 19~34세 청년 6,580명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남성 3,109명(47.25%), 여성 3,471명(52.75%)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5,640명(85.71%), 기혼 919명(13.97%), 사별 2명(0.03%), 이혼 19명(0.29%)로 나타났으며 그중 미혼이 85.71%로 혼인상태에서 데이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가구주 2,018명(30.67%), 비가구주는 4,562명(68.78%)로 비가구주 위주로 데이터가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 3,762명(57.17%), 그 외 2,818명(42.83%)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도 전체 지역 빈도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가구주와 혼인상태의 데이터가 각각 비가구주와 미혼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성별과 교육정도는 데이터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서울특별시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 분석결과는 <표4-2>에 제시하였다.

<표 4-2> 서울특별시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

구분	서울특별시(n=6,580)		
	빈도	퍼센트	
성 별	남 성	3,109	47.25
	여 성	3,471	52.75
혼인상태	미 혼	5,640	85.71
	기 혼	919	13.97
	사 별	2	0.03
	이 혼	19	0.29
가구주	가구주	2,018	30.67
	비가구주	4,562	68.78
교육정도	대졸이상	3,762	57.17
	그 외	2,818	42.83
합 계		6,580	100

다. 광주광역시

본 연구 대상인 광주광역시의 만 19~34세 청년 1,662명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남성 821명(49.40%), 여성 841명(50.60%)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1,389명(83.57%), 기혼 259명(15.58%), 사별 2명(0.12%), 이혼 12명(0.72%)로 나타났으며 그중 미혼이 83.57%로 혼인상태에서 데이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가구주 465명(27.98%), 비가구주는 1,197명(72.02%)로 비가구주 위주로 데이터가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 786명(47.29%), 그 외 876명(52.71%)로 그 외에 조금 더 많이 데이터가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도 전체 지역 빈도분석과 서울특별시 빈도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가구주와 혼인상태의 데이터가 각각 비가구주와 미혼으로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대로 성별과 교육정도는 데이터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광주광역시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 분석결과는 <표4-3>에 제시하였다.

<표 4-3> 광주광역시 인구사회학적 요인 빈도

구분		광주광역시(n=1,662)	
		빈도	퍼센트
성 별	남 성	821	49.40
	여 성	841	50.60
혼인상태	미 혼	1,389	83.57
	기 혼	259	15.58
	사 별	2	0.12
	이 혼	12	0.72
가구주	가구주	465	27.98
	비가구주	1,197	72.02
교육정도	대졸이상	786	47.29
	그 외	876	52.71
합 계		1,662	100

2. 독립변수 요인

가. 분석대상 전체 지역

전체 연구대상자의 독립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직활동 여부는 있었음 470명(13.18%), 없었음 3,097명(86.82%)로 구직활동 여부에 서는 데이터가 없었음에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여부는 참여 173명(2.10%), 비참여 8,069명(97.90%)으로 대상자 대다수가 비참여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직횟수는 없음 3,766명(80.56%), 1번 797명(17.05%), 2번 이상 112명(2.40%)이었다. 이직횟수는 없음에 데이터가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번 이상은 데이터가 많이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유무는 있었음 1,903명(53.35%)이고 없었음 1,667명(46.65%)이었다. 전직유무에는 데이터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지역 독립변수 빈도 분석결과는 <표4-4>에 제시하였다.

<표 4-4> 전체 지역 독립변수 빈도

구분	전체 지역(n=8,242)	
	빈도	퍼센트
구직활동 여부	있었음	470 13.18
	없었음	3,097 86.82
직업훈련 여부	있었음	173 2.10
	없었음	8,069 97.90
이직횟수	없음	3,766 80.56
	1번	797 17.05
	2번 이상	112 2.40
전직유무	있었음	1,903 53.35
	없었음	1,667 46.65
합 계	8,242	100

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연구대상자의 독립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직활동 여부는 있었음 394명(14.23%), 없었음 2,375명(85.77%)로, 구직활동 여부에서는 데이터가 없었음에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여부는 참여 125명(1.90%), 비참여 6,455명(98.10%)으로 대상자 대다수가 비참여에 분포되어있었다.

이직횟수는 없음 3,094명(81.19%), 1번 629명(16.51%), 2번 이상 88명(2.31%)이었다. 이직횟수는 없음에 데이터가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번 이상은 데이터가 많이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유무는 있었음 1,543명(55.72%)이고 없었음 1,226명(44.28%)이었다. 전직유무에는 데이터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서울특별시 독립변수 빈도 분석결과는 <표4-5>에 제시하였다.

<표 4-5> 서울특별시 독립변수 빈도

구분		서울특별시(n=6,580)	
		빈도	퍼센트
구직활동 여부	있었음	394	14.23
	없었음	2,375	85.77
직업훈련 여부	있었음	125	1.90
	없었음	6,455	98.10
이직횟수	없 음	3,094	81.19
	1번	629	16.51
	2번 이상	88	2.31
전직유무	있었음	1,543	55.72
	없었음	1,226	44.28
합 계		6,580	100

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연구대상자의 독립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직활동 여부는 있었음 76명(9.52%), 없었음 722명(90.48%)으로 구직활동 여부에서는 데이터가 없었음에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여부는 참여 48명(2.89%), 비참여 1,614명(97.11%)이며 대상자 대다수가

비참여에 분포되어있었다.

이직횟수는 없음 672명(77.78%), 1번 168명(19.44%), 2번 이상 24명(2.78%)이었다. 이직횟수는 없음에 데이터가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번 이상은 데이터가 많이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유무는 있었음 360명(45.11%)이고 없었음 438명(54.89%)이었다. 전직유무에는 데이터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광주광역시 독립변수 빈도 분석결과는 <표4-6>에 제시하였다.

<표 4-6> 광주광역시 독립변수 빈도

구분		광주광역시(n=1,662)	
		빈도	퍼센트
구직활동 여부	있었음	76	9.52
	없었음	722	90.48
직업훈련 여부	참여	48	2.89
	비참여	1,614	97.11
이직횟수	없음	672	77.78
	1번	168	19.44
	2번 이상	24	2.78
전직유무	있었음	360	45.11
	없었음	438	54.89
합 계		1,662	100

3. 청년 취업 영향 요인

가. 전체 지역

본 연구 대상인 전체 지역 취업자 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자는 429명(5.21%)이고 실업자는 4,675명(56.72%), 비경제활동인구는 3,138명(38.07%)이었다.

<표 4-7> 전체 지역 경제활동 여부 빈도

구분		전체 지역(n=8,242)	
		빈도	퍼센트
취업자	취업자	429	5.21
	실업자	4,675	56.72
	비경제활동인구	3,138	38.07
합 계		8,242	100

나. 서울특별시

본 연구 대상인 서울특별시 취업자 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자는 357명(5.43%)이고 실업자는 3,811명(57.92%), 비경제활동인구는 2,412명(36.66%)이었다.

<표 4-8> 서울특별시 경제활동 여부 빈도

구분		서울특별시(n=6,580)	
		빈도	퍼센트
취업자	취업자	357	5.43
	실업자	3,811	57.92
	비경제활동인구	2,412	36.66
합 계		6,580	100

다. 광주광역시

본 연구 대상인 광주광역시 취업자 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업자는 72명(4.33%)이고 실업자는 864명(51.99%), 비경제활동인구는 726명(43.68%)이었다.

<표 4-9> 광주광역시 경제활동 여부 빈도

구분		광주광역시(n=1,662)	
		빈도	퍼센트
취업자	취업자	72	4.33
	실업자	864	51.99
	비경제활동인구	726	43.68
합 계		1,662	100

라. 지역 빈도

본 연구 대상인 지역 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6,580명(79.84%)이고 광주광역시는 1,662명(20.16%)이었다. 지역 빈도에서는 데이터가 서울특별시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지역 빈도

구분		전체 지역(n=8,242)	
		빈도	퍼센트
지 역	서울특별시	6,580	79.84
	광주광역시	1,662	20.16
합 계		8,242	100

제 2 절 청년 취업의 영향 요인

1. 교차분석

취업자와 지역(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chi^2=28.483$, $p<.001$ 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1을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취업자와 지역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연관성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취업자는 357(5.4%)명으로 광주광역시 취업자 72(4.3)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283(1.1%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자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취업자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서울특별시의 취업자 수가 광주광역시의 취업자 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는 광주광역시 청년의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보다 취업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실업자는 3,811(57.9%)명으로 광주광역시 실업자 864(52.0%)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2,957(5.9%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실업자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실업자 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광주광역시 청년의 취업 기회가 서울특별시 청년 취업 기회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실업자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서울특별시의 실업자 수가 광주광역시의 실업자 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함과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비경제활동인구는 2,412(36.7%)명으로 광주광역시의 비경제활동인구 726(43.7%)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1,686(-7%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기회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비경제활동인구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광주광역시의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서울특별시의 비경제활동인구 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취업자와 지역 간의 연관성에 따른 주요 교차분석 분석결과는 <표 4-11>에 제시하였다.

<표 4-11> 취업자와 지역 간의 연관성

구분	빈도(%)			전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서울특별시	357(5.4)	3,811(57.9)	2,412(36.7)	6,580 (100.0)
광주광역시	72(4.3)	864(52.0)	726(43.7)	1,662 (100.0)
$\chi^2(p)$	28.483(0.001)***			

* p < .05, ** p < .01, *** p < .001

2. 기술통계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에 따른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혼인상태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t = -2.633$, $p = .009$ 로 유의수준 .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혼인상태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미혼은 5,640(85.71%)명으로 광주광역시의 미혼 1,389(83.57%)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4,251(2.74%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혼인상태 미혼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빈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기혼자는 919(13.97%)명으로 광주광역시의 기혼자 259(15.58%)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660(-1.61%p)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결혼할 기회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청년층은 취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결혼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혼인상태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미혼과 기혼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청년 취업에 미치는 혼인상태 요인 지역 비교

구 분	N	빈도				t	p
		미혼	기혼	사별	이혼		
혼인상태	서울특별시	6580	5,640	919	2	19	-2.633 .009**
	광주광역시	1662	1,389	259	2	12	

* p< .05, ** p< .01, *** p< .001

가구주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t= -2.171, p= .030로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가구주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가구주는 2,018(30.67%)명으로 광주광역시의 가구주 786(27.98%)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1,232(2.69%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가구주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 청년이 광주광역시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계를 책임져야 함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두 지역 간의 경제활동인구 수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가구주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과 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두 지역 간의 경제활동인구 수에서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13> 청년 취업에 미치는 가구주 요인 지역 비교

구 분	N	빈도		t	p
		가구주	비가구주		
가구주	서울특별시	6580	2,018	-2.171	.030*
	광주광역시	1662	465		

* p < .05, ** p < .01, *** p < .001

교육정도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t = -7.222, p < .001로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교육정도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대졸이상 3,762(57.17%)명으로 광주광역시의 대졸이상 786(47.29%)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2,976(9.88%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교육정도 대졸이상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더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취업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교육정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대졸이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더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14> 청년 취업에 미치는 교육정도 요인 지역 비교

구 분	N	빈도		t	p
		대졸이상	그 외		
교육정도	서울특별시	6580	3,762	-7.220	.001***
	광주광역시	1662	786		

* p < .05, ** p < .01, *** p < .001

따라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혼인상태, 가구주 그리고 교육정도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 영향요인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이직횟수, 전직유무)에 따른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t = -3.814, p < .001로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구직활동 여부 있었음은 394(14.23%)명으로 광주광역시의 구직활동 여부 있었음 76(9.52%)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318(4.71%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구직활동 여부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일자리를 찾아냈으며 취업할 기회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광주광역시보다 높으므로 서울특별시의 청년은 구직활동을 통한 취업할 기회를 더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구직활동 여부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구직활동 여부 있었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구직활동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광주광역시 청년보다 더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15> 청년 취업에 미치는 구직활동 여부 요인 지역 비교

구 분	N	빈도		t	p
		있었음	없었음		
구직활동 여부	서울특별시 6580	394	2,375	-3.814	.001***
	광주광역시 1662	76	722		

* p < .05, ** p < .01, *** p < .001

직업훈련 여부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t = 2.226, p = .026로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직업훈련 여부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직업훈련 여부 있었음은 125(1.90%)명으로 광주광역시의 직업훈련 여부 있었음 24(2.89%)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101(-0.99%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직업훈련 여부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 청년보다 광주광역시의 청년이 직업훈련을 체험할 기회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직업훈련 여부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청년이 서울특별시의 청년보다 직업훈련 여부 있었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광역시의 청년이 서울특별시 청년보다 직업훈련을 체험할 기회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표 4-16> 청년 취업에 미치는 직업훈련 여부 요인 지역 비교

구 분	N	빈도		t	p
		있었음	없었음		
직업훈련 여부	서울특별시 6580	125	6,455	2.226	.026*
	광주광역시 1662	48	1,614		

*p< .05, ** p< .01, *** p< .001

이직횟수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t = -2.110$, $p = .035$ 로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이직횟수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이직횟수 없음은 3,094(81.19%)명으로 광주광역시의 이직횟수 없음 672(77.78%)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2,422(3.41%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이직횟수 없음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횟수 1번 빈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이직횟수 1번은 629(16.51%)명으로 광주광역시의 1번 168(19.44%)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461(-2.93%p)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이직할 기회가 없거나 현재 직장의 만족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광주광역시 청년의 이직횟수 1번이 서울특별시 청년 이직횟수 1번보다 높은 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청년이 현재 직장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더 좋은 직장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이직횟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없음과 1번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은 현재 직장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광주광역시의 청년은 현재 직장에 불만족 할 가능성이 높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17> 청년 취업에 미치는 이직횟수 요인 지역 비교

구 분	N	빈도			t	p
		없음	1번	2번 이상		
이직횟수	서울특별시	6580	3,094	629	88	-2.110 .035*
	광주광역시	1662	672	168	24	

* p < .05, ** p < .01, *** p < .001

전직유무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t = -5.313$, $p < .001$ 로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전직유무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전직유무 있었음은 1,543(55.72%)명으로 광주광역시의 전직유무 있었음 360(45.11%)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1,183(10.61%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전직유무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취업할 기회가 높았으며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원했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전직유무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전직유무 있었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취업할 기회가 더 높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있었거나 원했다고 볼 수 있다.

<표 4-18> 청년 취업에 미치는 전직유무 요인 지역 비교

구 분	N	빈도		t	p
		있었음	없었음		
전직유무	서울특별시	6580	1,543	1,226	-5.313 .001***
	광주광역시	1662	360	438	

* p < .05, ** p < .01, *** p < .001

따라서 독립변수에서는 모든 요인인 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이직횟수, 전직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청년 취업 영향요인

취업자에 따른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자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t = -5.187$, $p < .001$ 로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취업자에 따라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취업자는 357(5.4%)명으로 광주광역시 취업자 72(4.3)명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283(1.1%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취업자 빈도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실업자는 3,811(57.9%)명으로 광주광역시 864(52.0%)명과 비교하였을 때 2,957(5.9%p)명의 차이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비경제활동인구는 2,412(36.7%)명으로 광주광역시의 비경제활동인구 726(43.7%)명과 비교하였을 때 1,686(-7%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빈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이 광주광역시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취업할 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특별시는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인구수가 더 많이 밀집되었으며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더 높은 취업의 기회로 인해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광주광역시 청년은 서울특별시 청년과 비교하였을 때 취업에 기회가 적거나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간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이 취업자와 실업자가 빈

도가 더 높음에 따라 취업의 기회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비경제활동인구 빈도가 더 높음에 따라 취업의 기회가 더 적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19> 경제활동 여부 지역별 비교

구 분	N	빈도			t	p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서울특별시	357	3,811	2,412	-5.187	.001***
	광주광역시	72	864	726		

* p < .05, ** p < .01, *** p < .001

3. 상관관계 분석

가. 전체 지역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 독립변수(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이직횟수, 전직유무)와 종속변수(취업자). 지역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취업자에 대해 알아보면 유의미한 변수들은 가구주($r=.151^{**}$), 교육정도($r=.359^{**}$), 구직활동 여부($r=.949^{**}$), 전직유무($r=.252^{**}$)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구직활동 여부가 $r=.949^{**}$ 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들은 혼인상태($r=-.073^{**}$), 직업훈련 여부($r=-.172^{**}$)로 나타났다. 그중 직업훈련 여부가 $r=-.172^{**}$ 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면 유의미한 변수들은 혼인상태($r=.032^{**}$), 가구주($r=.024^{*}$), 교육정도($r=.080^{**}$), 구직 활동 여부($r=.052^{**}$), 이직횟수($r=.032^{*}$), 전직유무($r=.089^{**}$), 취업자($r=.057^{**}$)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전

직유무가 $r=.089^{**}$ 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 지역 주요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20>에 제시하였다.

<표 4-20> 전체 지역 변수 간의 상관관계

	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	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이직횟수	전직유무	취업자	지역
혼인상태	1								
가구주	-.106**	1							
교육정도	-.146**	.113**	1						
구직활동 여부	.017	.058**	.225**	1					
직업훈련 여부	.045**	-.024*	.025*	-.061**	1				
이직횟수	-.031*	-.038**	.141**	-	-	1			
전직유무	-.216**	.073**	.298**	.251**	.067**	-	1		
취업자	-.073**	.151**	.359**	.949**	-.172**	-	.252**	1	
지역	.032**	.024*	.080**	.058**	-.028**	.032*	.089**	.057**	1

* $p<.05$, ** $p<.01$, *** $p<.001$

나. 서울특별시

본 연구에서 서울특별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 독립변수(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이직횟수, 전직유무)와 종속변수(취업자)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취업자에 대해 알아보면 유의미한 변수들은 가구주($r=.144^{**}$), 교육정도($r=.366^{**}$), 구직활동 여부($r=.945^{**}$), 전직유무($r=.252^{**}$)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구직활동 여부가 $r=.945^{**}$ 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들은 혼인상태($r=-.063^{**}$),

직업훈련 여부($r=-.168^{**}$)로 나타났다. 그중 직업훈련 여부가 $r=-.168^{**}$ 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서울특별시의 주요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21>에 제시하였다.

<표 4-21> 서울특별시 변수 간의 상관관계

	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	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이직횟수	전직유무	취업자
혼인상태	1							
가구주	-.088**	1						
교육정도	-.160**	.133**	1					
구직활동 여부	.028	.047*	.229**	1				
직업훈련 여부	.049**	-.015	.026*	-.064**	1			
이직횟수	-.021	-.012	.122**	-	-	1		
전직유무	-.203**	.069**	.301**	.253**	.089**	-	1	
취업자	-.063**	.144**	.366**	.945**	-.168**	-	.252**	1

* $p<.05$, ** $p<.01$, *** $p<.001$

다. 광주광역시

본 연구에서 광주광역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 독립변수(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이직횟수, 전직유무)와 종속변수(취업자)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취업자에 대해 알아보면 유의미한 변수들은 교육정도($r=.315^{**}$), 구직활동 여부($r=.971^{**}$), 전직유무($r=.242^{**}$)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구직활동 여부가 $r=.971^{**}$ 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변수들은 혼인상태($r=-.117^{**}$), 가구주($r=-.172^{**}$),

직업훈련 여부($r=-.183^{**}$)로 나타났다. 그중 직업훈련 여부가 $r=-.183^{**}$ 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광주광역시의 주요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22>에 제시하였다.

<표 4-22> 광주광역시 변수 간의 상관관계

	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	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이직횟수	전직유무	취업자
혼인상태	1							
가구주	-.175**	1						
교육정도	-.111**	.027	1					
구직활동 여부	-.027	.104**	.197**	1				
직업훈련 여부	.038	-.051*	.031	-.046	1			
이직횟수	-.072*	-.151**	.202**	-	-	1		
전직유무	-.268**	.087*	.279**	.229**	.014	-	1	
취업자	-.117**	-.172**	.315**	.971**	-.183**	-	.242**	1

* $p<.05$, ** $p<.01$, *** $p<.001$

제 3 절 분석결과 논의

본 논의는 본 연구결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시사점 제시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논의와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비교 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 논의

본 연구에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를 2가지 방향으로 제시한다. 첫째, 청년 취업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논의와 둘째, 청년 취업에 미치는 독립변수 요인에 대한 논의이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혼인상태와 가구주 그리고 교육정도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중 교육정도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가장 높은 영향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인 이지우(2019)는 성별에 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김형근 외(2016)는 혼인상태와 가구주 그리고 교육정도가 여성 취업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반정호 외(2005)도 가구주 요인이 청년계층의 안정된 고용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김진주·조민호(2016)는 청년대졸자가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하는데 성별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특성상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혼인상태, 가구주 그리고 교육 상태를 토대로 청년 취업을 증가시킬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독립변수에서는 모든 요인인 구직활동 여부, 전직유무, 이직횟수, 직업훈련 유무가 모두 통계적으로 청년 취업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중 구직활동 여부가 독립변수 중 가장 높은 영향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인 최문경·이기엽(2008)도 구직기간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 졸업생들이 구직을 먼저 시작할수록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았던 사람보다 첫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한승훈(2014)도 정규교육 외 교육훈련경험

유무가 청년층 일자리의 안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민주(2017)도 이직경험 요인에서 이직경험이 없을수록 대졸 청년이 현재 자리에서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반면 김형근 외(2016)는 구직활동 여부 요인과 비슷한 요인인 구직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김재홍(2018)도 전직유무 요인과 비슷한 요인인 직장경험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김보람(2013)도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경험요인이 대졸 청년 취업 결정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위한 취업전략 프로그램과 청년취업특강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전직유무와 이직횟수를 위한 행복내일취업지원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비교결과 논의

본 연구의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 연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의 취업자와 광주광역시의 취업자 빈도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의 차이가 283(1.1%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상대적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2,957(5.9%p)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7%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두 지역 간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경제활동인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았다고 볼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청년은 서울특별시의 청년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낮아 비경제활동인구 수 빈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년 취업에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혼인상태에서 미혼은 4,251(2.75%p)명, 기혼은 660(1.61%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 혼인상태에서도 상대적으로 두 지역 간의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와 교육정도 요인에서도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두 지역

간의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1,232(2.69%p)명, 대졸이상
 은 2,976(9.88%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가구주와 교육정도 요인에서도 상
 대적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청년이 서울특별
 시의 청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혼인상태에서 기혼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
 으며 서울특별시는 미혼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울특
 별시 청년은 광주광역시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가구주인 경우가 더 높았고 대졸이상인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 청년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수도
 권인 광주광역시 청년을 위한 비수도권청년교육제도, 비수도권 청년 취업지원프로그
 램, 비수도권성취프로그램과 같은 광주광역시 청년의 취업을 향상에 대한 보다 현실적
 인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독립변수 요인인 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이직횟수, 전직유무에서 상대적으로 두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구직활동 여부에서 318(4.71%p)명, 직업훈련 여부에서 101
 (0.99%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구직활동 여부에서 상대적으로 두 지역 간
 의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횟수는 없음 2,422(3.41%p)명, 1번
 461(2.93%p)명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이직횟수 요인에서도 상대적으로 두 지
 역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유무 요인 역시 1,183(10.61%p)명으로 두
 지역 간의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청년은 광주광역시
 청년보다 구직활동 여부, 이직횟수 없음, 전직유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
 다. 반대로 광주광역시 청년은 서울특별시 청년보다 직업훈련 여부와 이직횟수 1번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청년이 광주광역시의 청년보다
 구직활동 여부와 이직횟수 그리고 전직유무의 대한 기회가 더 많았고 광주광역시의 청
 년은 직업훈련의 대한 기회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
 청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취업증가를 위한 성취프로그램과 행
 복내일취업지원프로그램, 비수도권청년취업제도 등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 필요성이 제
 기된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간 비교 연구 후 청년의 취업을 상승을 위한 자료 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청년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선정하였으며 총 8,242명으로 그중 서울특별시는 6,580명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1,66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로 선정하여 두 지역을 지역별로 비교 연구하였다.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과 독립변수(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유무, 전직유무, 이직횟수)를 정하고 취업자(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지역(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으로 비교함에 따라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지역별 청년 취업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여러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와 지역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고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청년의 성별·혼인상태·가구주·교육정도·구직활동 여부·직업훈련 유무·전직유무·이직횟수요인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지역별 차이를 비교하는 총 3개의 연구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분석 자료는 한국콘텐츠진흥원(2020)에서 제공한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A형 시군 중분류)」 자료이며 그중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청년(만 19세 ~ 34세) 8,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표본의 특성 및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대졸 이상이 57.17%로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 47.29% 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나

타났다. 독립변수에서도 서울특별시가 전직유무 요인에서 있었음 55.72%로 광주광역시 45.11%보다 전직유무 있었음에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취업자)간에 지역별(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취업자와 지역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실업자가 57.9%로 광주광역시 52.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반대로 광주광역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3.7%로 서울특별시 36.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청년 취업에 미치는 요인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간의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독립변수에서는 모든 요인인 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여부, 이직횟수, 전직유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간의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인 취업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간의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지역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 취업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에 서울특별시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은 가구주와 교육정도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은 교육정도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와 가구주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에 독립변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에 서울특별시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은 구직활동 여부와 전직유무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여부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은 구직활동 여부와 전직유무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여부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에서 제공한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청년 만 19세 ~ 34세를 대상으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비교 연구하였으며 이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지역별 비교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 희소성이 인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 취업에 관한 영향 요인과 비교할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이므로 가장 많은 청년층이 분포되어있으며 반면 광주광역시 비수도권으로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였을 때 청년층 수가 약 5배가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만을 비교한 연구가 많지 않음에 따라 본 연구가 희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비교자료나 근거자료로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들 가운데 대표성이 부족할 때 일치하지 하는 값과 일치하지 않는 값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총 8,242명의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는 성별, 혼인상태, 교육정도 등 다양한 계층과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 나온 결과 값은 충분한 일반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가 비교자료나 근거자료로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들 가운데 대표성이 부족할 때 일치하지 하는 값과 일치하지 않는 값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한 대상자들인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정책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부터 24세까지 정의하였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였지만 청년할당제

로 인하여 15세 이상부터 34세로 청년 연령 개정되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 등 청년층 연령에 관한 명확한 표기법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청년 연령대인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선정하였지만 보다 명확한 자료와 결과를 위해 청년층 연령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가 청년층에 관한 연구에서 청년층의 연령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비교자료나 근거자료로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들 가운데 대표성이 부족할 때 일치하지 하는 값과 일치하지 않는 값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유추해 내었다. 본 연구의 영향 요인을 유추함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청년 취업 이론인 인적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 통계적 차별 이론(Statistic Discrimination Theory) 그리고 직업탐색 이론(Job Search Theory)을 통하여 본 연구의 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혼인상태, 가구주, 교육정도와 독립변수인 구직활동 여부, 직업훈련 유무, 이직횟수, 전직유무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이 기존에 진행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지역 비교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본 연구가 향후 관련 연구에 비교 자료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실천적 시사점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결과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분포도를 보았을 때 서울특별시는 실업자가 더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광주광역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서울특별시는 청년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성공패키지,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취업 희망 프로그램, 행복내일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청년실업자의 빈도를 낮추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또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빈도를 낮추기 위한 성취 프로그램, 취업특강,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확대로 비경제활동인구를 감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청년실업자를 감소를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

과 광주광역시 청년비경제활동인구를 감소를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 실행이 촉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직업훈련 여부 요인이 취업에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모두 가장 낮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서울특별시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청년의 수가 낮으며 서울특별시의 더 많이 분포되어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진행되는 직업훈련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청년보다 광주광역시 청년 취업자 수가 낮은 것을 고려하였을 때 광주광역시 청년의 취업을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광주광역시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비수도권 취업특강 프로그램, 지방도시 행복내일취업지원프로그램, 비수도권 취업 희망 프로그램 등 수도권 위주가 아닌 전국의 균형적인 청년 취업의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위주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훈련 여부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지역 청년 취업을 증가를 위한 실천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정도 요인에서 서울특별시는 대졸이상이 57.17%로 광주광역시 대졸이상 47.29%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의 청년층이 광주광역시의 청년층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대학졸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광역시의 청년층이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청년층과 비교하였을 때 대졸 이상의 학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 청년을 위한 실천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 청년들과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의 청년들의 최종학력에 대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더욱 현실적이고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수도권이 비교적 명문 대학을 비롯한 학력 향상에 대한 기회가 비수도권에 비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광주광역시와 같은 비수도권 청년들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청년지원 프로그램, 대졸취업자지원 프로그램, 청년취업 역량 프로그램 등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층의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 청년들의 교육 및 대학진입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대학교 졸업 및 취업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3. 정책적 시사점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모두 독립변수에서 구직활동 여부 요인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요인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였을 때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지역 모두 청년층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여 취업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도움을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취업을 증가를 위한 비수도권만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별개로 광주광역시 청년만을 위한 청년 경제지원 정책과 같은 청년의 구직활동 기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청년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경제지원정책, 청년 취업정책 등의 청년 정책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지역 모두 청년 취업을 증가를 위한 청년 정책 등의 시행으로 청년 구직 활동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의 청년 취업자가 서울특별시의 청년 취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전체적인 정책보다는 광주광역시의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 서울특별시의 청년층은 6,580명이었으며 광주광역시의 청년층은 1,662명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소개된 서론 및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서는 인구수 차이가 있을뿐더러 청년층의 빈도 분포도 역시 서울특별시가 약 5배 더 광주광역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두 지역 간의 청년 빈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비수도권에 청년층의 빈도를 더 높이기 위한 청년 정책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청년층이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에 더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수도권지역인 광주광역시 청년 취업 성공패키지를 위한 정책, 정부의 공익광고, 홍보와 같은 비수도권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셋째,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취업자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취업자는 357명으로 5.4%였으며 광주광역시의 취업자는 72명으로 4.3%였다. 두

지역 모두 취업자가 전체 청년 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의 청년 인구가 더 많고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와 비교하였을 때 그 수치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 광주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였을 때 취업할 기회와 폭이 낮으므로 서울특별시에 있는 청년층보다 더 위험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이 대부분 수도권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인 지역은 비교적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정책의 전철을 밟는 상황이므로 이 역시 광주광역시와 같은 각 비수도권지역을 위한 정책과 지침이 필요한 바이다. 따라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를 위주로 한 정책이 아닌 광주광역시만을 위한 정책 및 방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서울특별시의 청년 대상자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6.2%였고 광주광역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43.7%로 두 지역 간의 비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빈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의 청년층이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의 청년층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는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였을 때 청년 인구수도 낮을뿐더러 경제활동인구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의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이 나타났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청년의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제도, 취업 장려금 등의 정책을 통해 광주광역시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이다. 청년 취업에 관한 지역별 비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희소성과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청년 대상자의 나이를 만 19 ~ 34세 이하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인 청년층의 연령범위가 15년 정도의 연령층 범위는 구체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층의 연령을 선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청년의 연령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 연구대상의 연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10대, 20대, 30대 혹은 청년 초기, 중기, 후기 등으로 나누어 대상별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향후 연구의 청년 연령대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등 통일하여 선정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콘텐츠진흥원(2020)에서 제공한 마이크로데이터(MicroData)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대상 표본 비율에 선택적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시된 자료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는 약 5배 정도의 대상자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최대한 지역 간의 대상자를 공평한 규모로 나눠서 각 지역 간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향후 연구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같이 특정 요인들만 적용한 연구라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취업률, 비경제활동인구, 경제성장률, 자립도, 지역경제 등 더욱 다양한 청년 취업 사회적 요인과 개인특성 요인, 재취업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을 적용한 향후 연구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비수도권인 광주광역시의 청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와 같은 다른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광역시를 비롯한 시·도 역시 전체적으로 비교하였기에 각각의 시·도 간의 차이도 비교하는 연구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덕구(2018), “생애적 관점에서의 1인 가구 사역 방안 : 청년후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광주광역시청(2021), 「2020년 광주통계연보」, <https://www.gwangju.go.kr/>
- 경승구(2013), “인턴제 경험이 대졸자 께찮은 일자리 진입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경제활동인구조사(공공용). (2021). [Data set].
<https://doi.org/10.23333/P.101004.001>
- 구본은 외(2021. 08. 25), 「[대학생 기자가 간다] 경쟁에 지쳐 무기력한 청년들」, 『경남신문』
- 광주광역시청(2021), 「2021년 청년정책」, <https://www.gwangju.go.kr/>
- 광주광역시청(2021,4), 「광주광역시 인구 및 세대현황」, <https://www.gwangju.go.kr>
- 국어대사전(2021), <https://stdict.korean.go.kr>
- 김경모(2002), “청년층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교성·반정호(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 김규혜 외(2020), " '취업' 과 '실업' 의 사이에서: 청년이직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7.4 (2020): 49-85.
- 김기현(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44(0), 54-68
- 김재홍(2018), “대졸자의 취업이동과 지역인재유출: 울산지역 사례. 한국지방자치연구” , 19(4), 69-90.

- 김종인(2007), “발달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새신자 교육에 관한 한 연구 : 교육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한일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주(1999),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가능성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주·조민호(2016),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4), 35-65.
- 김형근 외(2016), “대전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특성 분석. 경제연구”, 34(3), 161-186.
- 남건우(2020. 11. 12), 「‘잃어버린 세대’ 29만명」, 『동아일보』
- 남기곤(2007), “청년층미취업자특성에관한분석”, 제 6회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심포지엄, 『코엑스(COEX)컨퍼런스 센터』
- 뉴스 1(2021. 01. 30), 「“文정부, 더는 ‘청년’ 팔아 표 못 얻는다…고졸 일자리 절망”」, 『동아일보』
- 뉴시스(2019.04.17), 「상반기 고학력 취업자 비율 1위는 세종시... ‘대졸 이상’ 67.5%」, 『동아일보』
- 류기철(2001),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1), 207-230.
- 반정호 외(2005), “청년 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73-103.
- 서울청년정책(2021), 「청년 정책 개요」, <https://youth.seoul.go.kr/>
- 서울특별시(2021), 「주민등록인구(구별)」, <http://data.seoul.go.kr>
- 신명희 외(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안성모·공성윤(2020. 02. 04), 「수도권-비수도권, 두 개의 대한민국」, 『시사저널』
- 안소영(2019. 05. 27), 「10년차 직장인, 평균 4차례 이직한다...연봉이 원인」, 『조선일보』
- 오두환(2012. 11. 21),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중소기업 손잡고 맞춤 교육 ...

- 을 8486명 중 85% 취업」, 『중앙일보』
- 오세규(2003), “대졸자의 취업영향 결정요인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은진 외(2009),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취업선택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2권 1호, 141-162.
- 이경미(2019.12.11.), 「11월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수 30만명 ↑」, 『경제일반』
- 이민주(2017), “대졸청년층의 이직실태와 이직의도 분석 : GOMS를 활용한 대학소재지와 취업목표 유무설정시기 요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2019), "운수업 대졸 신입직원의 이직요인 분석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주빈(2020. 12. 03), 「"20대 여성의 고통은 사회적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겨레』
- 이지우(2019), "청년의 관참은 일자리 취업의 영향 요인에 관한 지역 간 비교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이지원(2020. 05. 15), 「성별·주거형태에 따라 1인가구 비중 차이 커져... 여성·미취업자 1인가구 비중 ↑」, 『DAILY POP』
- 임성빈(2019. 08. 27), 「청년실업 최악인데...대기업 34% “채용 없다”」, 『중앙일보』
- 임유진(2016), “고졸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지연·호정화(2001),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 미취업기간 탈출률의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4), 159-188
- 정성배·이지우(2018), "대졸자의 관참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지역 비교." 지역사회연구 26.4 (2018): 189-206.
- 정우성(2020.07.22.), 「직업 없는 20대 사상 최대... 166만 명 넘었다.」, 『시사저널』

- 정태영 · 이기엽(2005), “대졸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학점이 취업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8(2), 159-184
- 조민수(2008),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에 관한연구”, 제9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발표자료집, 717-746.
- 조우현(1995), “청년층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실업영향의 결정요인분석”, 『노동경제논집』, 18(1), 107-128
- 조주영(2012), “대졸자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관한 연구 :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창균 ·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 최문경 · 이기엽(2008), “대학졸업에서 첫 직장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1(3), 23-48.
- 통계청(2021), 「국내인구이동결과」, <https://kostat.go.kr/portal/korea>
- 한국경제연구원(2020), <http://www.keri.org>
- 한승훈(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황은미(2018), “대졸자의 직업훈련 유무가 첫 일자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원 · 길혜지(2021), "청년고용정책이 대졸 청년층 취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4.2 (2021): 67-94.
- 행정안전부(2021),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https://jumin.mois.go.kr>

2. 국외 문헌

Arrow, K.(1972), “Models of Job Discrimination” , in Anthony, H. P.(eds.),
RacialDiscrimination in Economic Life, MA: Lexington Book

Becker, G.(1975), Human Capital,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E-나라지표(2021), <https://www.index.go.kr>

J.T., Shanahan M.J.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Handbooks of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Springer, Boston, MA.

Mincer, J.(1970), The distribution of labor income a surve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uman capit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8(1), 1-26.

OECD(2019), <https://www.oecd.org>

Phelps, E. S.(1972), “The Statistical Theory of Racism and Sexism” ,
The AmericanEconomic Review, Vol.62 No.4, pp. 659~ 661